

트럼프 '휴전' 발표에도 살얼음판...실행까지는 변수 남아

트럼프, 24시간내 이스라엘-이란 단계적 휴전합의 발표...양측 일단 긍정 반응

아직 곳곳서 폭발음...휴전시에도 '이란 핵개발' 여부따라 언제든 갈등 불러

중동의 두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발표했지만, 실제 종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이번 분쟁의 새 국면을 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내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휴전안을 제시했다.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4일 자정부터 이란이 공격을 중단하고, 12시간 후인 24일 정오에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며, 다시 12시간이 지나면 "진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이다.

양측은 24일 자정 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다. 양측의 교전은 이때까지만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공식 합의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긍정적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압바스 아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엑스(X·엣 트위터)에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 시간으로 늦어 도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 침략'을 중단하면 우리는 이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이 공격을 멈추면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발언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미국의 휴전안에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남은 24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일단 양측은 '상대방이 공격을 멈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사움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가드'를 먼저 풀지는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국 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24시간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공격받는 일이 생기면 즉각 보복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휴전이 불발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임무를 마무리할 시간'에 벌어지길 했지만, 여전히 이란의 수도 테헤란 곳곳에선 폭발음이 들리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테헤란에 다시 공습에 대비한 대피를 권고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이란도 이에 맞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근교에 공습 대피 경고를 발령했다.

24시간을 무사히 넘겨 휴전이 성립되더라도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압도적 무력에 강제된 휴전일 뿐,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이었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됐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난 21일 전격 공습했던 이란의 포르도와 나탄즈 등의 핵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는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베어르셰바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주거 지역의 잔해 속에서 구급대원들이 작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는 아직 불명확하다.

일각에선 이란이 미국의 공습에 앞서 농축 우라늄을 다른 장소로 미리 빼돌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핵시설을 오간 트럭들의 '비정상적' 움직임을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휴전에 합의하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의해 자국 핵시설이 유린당한 이란이 본격적인 핵

무기 개발 노선을 정하고, 개발 속도를 가속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포착될 경우 양측은 휴전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야코프 아미드로르는 언론에 "농축

우라늄이 '크고 강력한 용기'에 보관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스라엘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란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파국을 피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日참의원 선거 내달 20일 실시...이시바 정권 분수령

일본 정부가 24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참의원(상원) 선거를 다음 달 20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참의원 정원은 248명이며 3년마다 의원 절반을 뽑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결원 1명을 포함해 125명이 선출된다.

선거 대상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현직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은 각각 52명, 14명이다. 두 정당이 총 50명의 당선자를 내면 참의원에서 기존 의석수를 더해 과반을 유지하게 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를 목표로 제시했다.

교도통신은 "여야는 이미 참의원 선거를 위한 논전을 본격화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고물과 대책과 정치자금 문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물과 대책으로 집권 자민당은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고,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소비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자민당이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패배한 데 이어 이달 22일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도 역대 최소 의석수를 기록하며 참패한 가운데 치러져 이시바 정권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中 "9월3일 텐안먼광장 열병식"

중국이 오는 9월3일 베이징 텐안먼(天安門) 광장에서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 대회'와 열병식을 열기로 했다.

후허핑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은 24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기자회견에서 9월3일 오전 승전 80주년 기념식·열병식을 열고 시진핑 국가주석(당 총서기)이 연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군은 이번 열병식에 국산 신형·현역 무기들을 선보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파리 디즈니랜드 통째 빌려 9세 여아 '결혼식'...알고 보니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 만들어달라"

엄마가 요청...하객 100명은 엑스트라

아동학대는 무혐의, 허위서류 사법처리

의 전모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이었던 지난 21일 오전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약 100명의 하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이 열렸다.

웨딩드레스 차림의 꼬마 신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이 힘겨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넘어질 락발락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날 결혼식은 진짜 결혼식이 아니었다. 다만, 신부 복장을 한 꼬마의 엄마가 '공주에게 어울리는 하루'를 아홉살 난 딸에게 선사하고 싶다면서 의뢰한 이벤트였다.

자리를 채운 하객들은 모조리 돈을 받고 동원된 엑스트라였다.

행사장인 파리 디즈니랜드의 예약은 몇 주 전에 이뤄졌으며, 빌리는 데에 13만 유로(2억1천 만원)가 들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신부 아버지' 역할을 맡기로 하고 1만2천 유로(1천900만원)를 받고 현장에 온

라트비아 출신 남성(55)이 신부가 어린이라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놀이공원 측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디즈니랜드 관계자들은 신고를 받고 행사를 중단시켰으며, 불법적인 아동 결혼이나 아동 학대·착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국에 고소했다.

수사당국은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아홉살 여아의 엄마(41)와 '신부 언니' 역할을 맡은 라트비아 여성(24), 신고자인 '신부 아버지', 그리고 '신랑' 역할을 맡고 이번 행사 준비를 총괄한 남성 등 4명을 일단 체포했다.

당국은 조사 후 아동학대 등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체포했던 4명 중 신부 차림을 한 꼬마의 엄마와 '신부 아버지' 대역 등 2명은 무혐의로 석방했다. 다만 '신부 언니'와 '신랑'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마치 이번 행사가 진짜 결혼식인 것처럼 디즈니랜드 측을 속인 혐의로 수사를 계속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남도
밥상

을
지
키
는
사
민
들

최지영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 광주매일신문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푸른 자연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 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염전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 -(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

